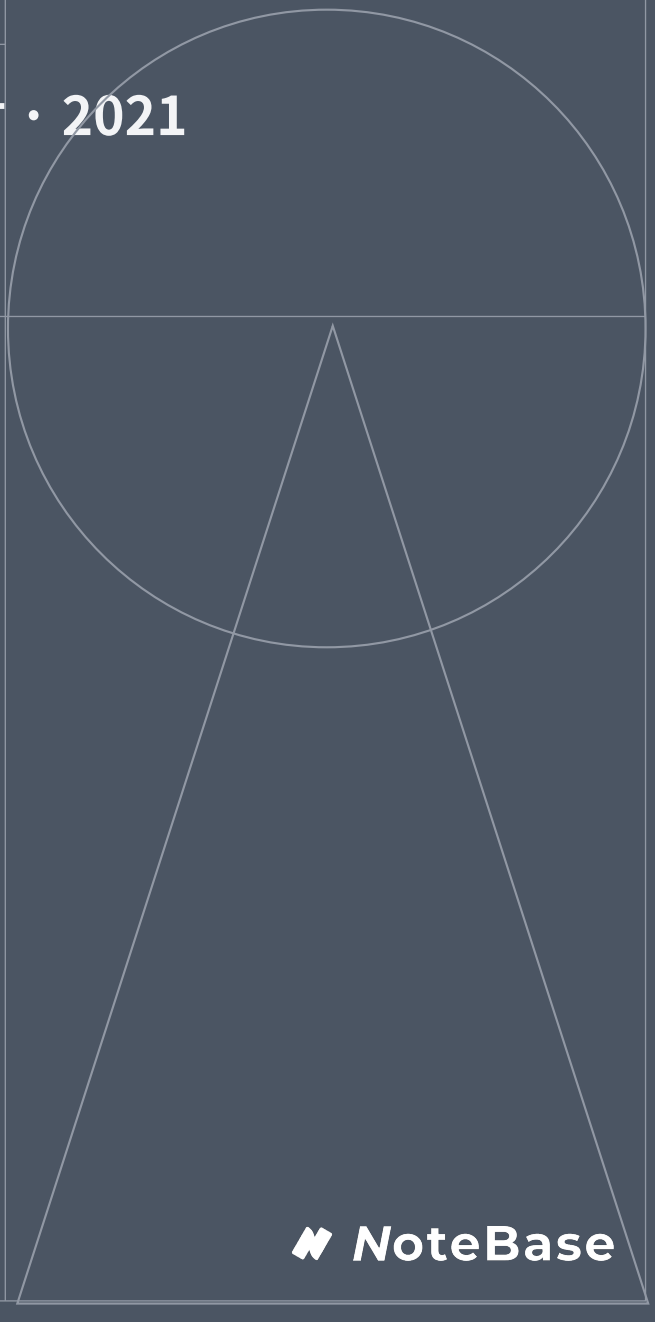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21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21

문 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목적적합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② 보강적 질적 특성은 근본적 특성을 보강시키는 특성으로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이 있다.

③ 동일한 경제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비교가능성은 증가한다.

④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동일한 경제현상에 서로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보고된 금액의 차이가 실제 경제적 차이 때문인지 처리방법의 차이 때문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비교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목적적합성은 재무정보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는 데 투입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면 예측가치가 있고, 과거의 평가를 확인하거나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면 확인가치가 있다.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목적적합성을 가질 수 있으며, 두 가치가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O: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고, 보강적 질적 특성은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이다. 보강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높인다. 다만 근본적 질적 특성이 결여된 정보를 보강적 질적 특성만으로 유용하게 만들 수는 없다.

③ X: 비교가능성은 항목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이다. 동일한 경제현상에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비교가능성이 감소한다**. 같은 현상도 선택한 방법에 따라 보고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기업 간 또는 기간 간 차이가 경제적 실질에서 비롯되었는지 회계처리방법에서 비롯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선지의 '증가한다'를 '감소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적시성은 정보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필요한 때에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투자 여부를 결정한 뒤에야 관련 정보를 얻는다면, 그 정보는 이미 끝난 결정에 영향을 줄 기회를 놓치게 된다. 단순히 정보를 빨리 제공하는 것보다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시점에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2.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측정을 해야 하며 많은 경우 그러한 측정은 추정될 수 없다.

②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만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며 그러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③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에 따라 수익과 관련된 비용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

④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나 유출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할 수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①의 '측정은 추정될 수 없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려면 측정해야 하며, 많은 경우 **추정을 통해 측정한다**. 합리적인 추정은 재무정보 작성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려면 재무제표에 표시할 금액을 측정해야 한다. 많은 경우 그 금액은 직접 관측할 수 없어 **추정되어야 한다**. 추정 내용과 방법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합리적인 추정의 사용이 정보의 유용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측정불확실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인식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② O: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려면 먼저 자산·부채·자본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정의 충족이 곧 인식을 뜻하지는 않는다**. 인식이 목적적합한 정보와 충실한 표현을 제공하는지, 정보 제공의 효익이 원가를 정당화하는지 등을 고려하므로 정의를 충족해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③ O: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에 따라 수익과 관련 비용이 동시에 인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품을 현금으로 판매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을 인식하면서 수익을 인식하고, 판매한 상품이라는 자산을 제거하면서 매출원가를 인식한다. 이처럼 수익·비용의 대응은 **자산·부채의 변동을 인식한 결과**로 나타난다.

④ O: 경제적효익의 유입·유출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자산이나 부채의 존재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자산·부채의 존재와 인식 여부는 구별**해야 한다. 가능성이 낮으면 인식이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언제나 인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3. (주)한국의 다음 재무자료를 이용한 기타포괄이익은?

◯ 기초자산 ₩15,000 ◯ 기초부채 ₩8,000
◯ 기말자산 ₩18,000 ◯ 기말부채 ₩5,000
◯ 당기순이익 ₩3,000 ◯ 유상증자 ₩2,000
◯ 현금배당 ₩1,000 ◯ 기타포괄이익 ?

① ₩0
② ₩1,000
③ ₩2,000
④ ₩3,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자본 증가액에서 **유상증자·현금배당에 따른 변동을 제외**하면 총포괄이익은 5,000원이다. 여기서 당기순이익 3,000원을 뺀 **2,000원**이 기타포괄이익이다.

계산 과정

1. 기초·기말 자본 계산: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기초자본은 15,000 − 8,000 = 7,000원이고, 기말자본은 18,000 − 5,000 = 13,000원이다. 따라서 당기 자본 증가액은 13,000 − 7,000 = 6,000원이다.

2. 총포괄이익 계산: 총포괄이익은 자본 변동 중 **소유주와의 자본거래에 따른 변동을 제외한 금액**이다. 유상증자 2,000원은 소유주의 출자로 자본을 늘리고, 현금배당 1,000원은 소유주에게 분배하여 자본을 줄인다. 따라서 자본 증가액에서 유상증자는 빼고 현금배당은 더하여, 총포괄이익을 6,000 − 2,000 + 1,000 = 5,000원으로 구한다.

3. 기타포괄이익 계산: 총포괄이익은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의 합계**이다. 총포괄이익 5,000원에서 당기순이익 3,000원을 빼면 기타포괄이익은 5,000 − 3,000 = 2,000원이며,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4. (주)한국은 20×1년 직원들에게 ₩1,000의 급여를 현금 지급하였다. 20×1년 초 미지급급여가 ₩200, 20×1년 말 미지급급여가 ₩700이면 당기에 발생한 급여는?

① ₩1,000

② ₩1,200

③ ₩1,500

④ ₩1,7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당기에 발생한 급여는 현금 지급액에서 **기초 미지급급여를 빼고 기말 미지급급여를 더해** 구한다. 따라서 20×1년 급여는 1,000 − 200 + 700 = 1,500원이다.

계산 과정

미지급급여는 직원의 근로 제공으로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급여이다. 발생주의에 따라 급여는 **현금 지급 시점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받은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기초 미지급급여 차감: 20×1년 현금 지급액 1,000원에서 전기에 이미 발생한 기초 미지급급여 200원을 제외한다. 1,000 − 200 = 800원은 당기에 발생한 급여 중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다.

기말 미지급급여 가산: 기말 미지급급여 700원은 **당기에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급여**이므로 당기 비용에 포함한다. 당기에 발생한 급여는 800 + 700 = 1,500원으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된 '상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환손익 또는 단기매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순액으로 표시한다.

② 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액을 다른 제도의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가 있고, 순액기준으로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동시에 제도의 초과적립액을 실현하고 다른 제도의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면,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한 자산은 다른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부채와 상계한다.

③ 투자자산 및 영업용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처분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④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삼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차익과 차손은 순액으로 표시하지만, **중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외환손익이나 단기매매 금융상품의 손익처럼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순액으로 표시한다. 다만 **차익과 차손이 중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상계하면 큰 차익과 차손이 서로 가려져 거래의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를 '중요성을 고려하여'로 고쳐야 한다.

② O: 한 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액으로 다른 제도의 채무를 결제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와 결제 의도**를 모두 갖추면 서로 다른 제도의 자산과 부채를 상계한다. 결제 의도는 순액으로 채무를 결제하려는 의도이거나, 한 제도의 초과적립액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다른 제도의 채무를 결제하려는 의도이다. 권리만 있거나 의도만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③ O: 투자자산과 영업용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의 처분에서는 처분대가 전체를 이익으로 볼 수 없다. 자산을 처분하면서 제거되는 **장부금액과 관련처분비용을 처분대가에서 차감**하여 처분손익을 표시한다. 이는 같은 처분거래에서 생긴 대가와 관련 원가를 함께 반영하여 실제 손익을 나타내는 것이다.

④ O: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충당부채 관련 비용과 제삼자의 변제에 관하여 인식한 금액을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변제받을 권리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비용과 변제 관련 금액의 순액 표시가 허용된다는 것이 충당부채와 변제자산 자체를 상계한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6. 다음의 20×1년 재무정보를 이용한 매출총이익은? (단, 회전율 계산시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이용한다)

매출채권회전율	10회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원가 기준)	6회
기초매출채권	₩600	기초재고자산	₩500
기말매출채권	₩400	기말재고자산	₩700

① ₩1,000

② ₩1,400

③ ₩1,900

④ ₩2,2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매출채권회전율로 구한 매출액은 5,000원이고, 매출원가 기준 재고자산회전율로 구한 매출원가는 3,600원이다.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이므로 1,400원이다.

계산 과정

1. 매출액: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액을 평균 매출채권으로 나눈 값이다. 문제의 조건에 따라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사용하면 평균 매출채권은 $\frac{600+400}{2}$ = 500원이다. 매출채권회전율이 10회이므로 매출액은 평균 매출채권의 10배인 500 × 10 = 5,000원이다.

2. 매출원가: 주어진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 기준**이므로 매출원가를 평균 재고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평균 재고자산은 $\frac{500+700}{2}$ = 600원이다. 회전율이 6회이므로 매출원가는 600 × 6 = 3,600원이다.

3. 매출총이익: 매출액에서 판매한 재고자산의 원가인 매출원가를 차감한다. 매출총이익은 5,000 − 3,600 = 1,40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7. 다음 설비자산 자료를 이용한 20×2년 재평가잉여금 기말 잔액은? (단, 설비자산은 취득시부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를 고려하지 않는다)

◯ 20×1년 1월 1일에 설비자산을 ₩30,000에 취득(정액법 상각,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5,000)
◯ 20×2년 1월 1일에 동 설비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연수합계법으로 변경(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7,500)
◯ 공정가치: 20×1년 말 ₩37,500, 20×2년 말 ₩25,000

① ₩0
② ₩500
③ ₩9,500
④ ₩1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20×1년에 발생한 재평가잉여금 10,000원에서 **20×2년 재평가 감소액 500원**을 차감한다.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으므로 기말 잔액은 9,5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1년 감가상각: 취득원가 30,000원에서 잔존가치 5,000원을 뺀 금액을 내용연수 10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배분한다. 감가상각비는 $\frac{30{,}000-5{,}000}{10}=2{,}500$원이고, 재평가 전 장부금액은 30,000 − 2,500 = 27,500원이다.

2. 20×1년 말 재평가: 공정가치 37,500원과 재평가 전 장부금액 27,500원의 차이인 10,000원을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한다. 재평가 후 장부금액 37,500원은 다음 해 감가상각의 출발점이 된다.

3. 20×2년 감가상각: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잔존가치의 변경은 **변경 시점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므로 20×1년 감가상각을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변경 시점 장부금액 37,500원에서 새 잔존가치 7,500원을 뺀 30,000원이 앞으로 배분할 감가상각대상금액이다. 변경 후 내용연수 4년의 연수합계는 4 + 3 + 2 + 1 = 10이고, 첫해 배분비율은 $\frac{4}{10}$이다. 따라서 20×2년 감가상각비는 $30{,}000\times\frac{4}{10}=12{,}000$원이며, 재평가 전 장부금액은 37,500 − 12,000 = 25,500원이다.

4. 20×2년 말 재평가: 공정가치가 25,000원이므로 장부금액을 25,500 − 25,000 = 500원 줄인다. 재평가 감소액은 **동일 자산의 기존 재평가잉여금 한도에서 먼저 차감**한다. 기존 잔액 10,000원이 충분하므로 감소액 500원 전부가 재평가잉여금을 줄인다.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20×2년 기말 잔액은 10,000 − 500 = 9,500원으로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8. ㈜한국은 회수불능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기말 매출채권 잔액의 1%가 회수불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이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대손상각비는?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장부상 자료

구분	20×1년 말	20×2년 말
매출채권	₩900,000	₩1,000,000
대손충당금	₩9,000	?

○ 20×2년 중 매출채권 대손 및 회수 거래

- 1월 10일: (주)대한의 매출채권 ₩5,000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판명
- 3월 10일: (주)민국의 매출채권 ₩2,000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판명
- 6월 10일: 1월 10일에 대손처리되었던 (주)대한의 매출채권 ₩1,500 회수

① ₩1,000
② ₩6,500
③ ₩8,000
④ ₩1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기말에 필요한 대손충당금 10,000원에서 **결산 조정 전 대손충당금 잔액 3,500원**을 뺀 6,500원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조정 전 잔액은 기초 충당금에서 대손처리액을 차감하고, 과거 대손처리한 채권의 회수액을 더하여 구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기말 필요 대손충당금: 매출채권 잔액의 1%를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므로, 이 비율은 **기말에 남겨 두어야 할 충당금 잔액**을 정하는 데 사용한다. 20×2년 말 매출채권 1,000,000원 × 1% = 10,000원이 기말 필요 대손충당금이다.

대손처리 반영: 20×1년 말 대손충당금 9,000원이 20×2년 기초로 이월된다. 1월 10일 ㈜대한의 채권 5,000원과 3월 10일 ㈜민국의 채권 2,000원을 대손처리하면, 매출채권과 함께 **기존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두 거래 후 충당금 잔액은 9,000 − 5,000 − 2,000 = 2,000원이다.

대손채권 회수 반영: 6월 10일에는 이미 대손처리한 ㈜대한의 채권 중 1,500원을 회수하였다. 회수액만큼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을 복구한 뒤 현금 회수를 기록하므로, **대손충당금은 1,500원 증가**한다. 결산 조정 전 충당금 잔액은 2,000 + 1,500 = 3,500원이다.

대손상각비 계산: 기말 필요 충당금에 비해 부족한 금액을 당기 비용으로 추가 설정한다. 대손상각비 = 기말 필요 대손충당금 − 결산 조정 전 대손충당금 잔액 = 10,000 − 3,500 = 6,500원이다. 이 금액을 인식하면 충당금 잔액은 3,500 + 6,500 = 10,000원이 되며, 계산된 대손상각비 6,500원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9.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회계기간 중에 배분된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과 회계기말에 집계된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의 차이로 발생한다.

② 원가요소별 비례배분법은 기말의 재공품, 제품 및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제조간접원가 실제배부액의 비율에 따라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조정한다.

③ 제조간접원가 배부시 실제배부율은 사후적으로 계산되지만, 예정배부율은 기초에 사전적으로 계산된다.

④ 제조간접원가 과대배부액을 매출원가조정법에 의해 회계처리하는 경우, 매출원가가 감소하게 되므로 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원가요소별 비례배분법의 조정 기준은 각 계정에 포함된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의 비율**이다. ②의 '실제배부액의 비율'은 '예정배부액의 비율'로 고쳐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정상개별원가계산에서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는 실제원가로 계산하고, 제조간접원가는 예정배부율에 실제 배부기준수량을 곱하여 배부한다. 이 **예정배부액과 실제발생액의 차이**가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이다. 예정배부액이 실제발생액보다 크면 과대배부, 작으면 과소배부이다.

② X: 원가요소별 비례배분법은 기말의 재공품·제품 및 매출원가에 포함된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의 비율**로 배부차이를 나누어 조정한다. 기간 중 예정배부한 제조간접원가는 생산 진행에 따라 재공품에서 제품으로, 판매되면 매출원가로 이동한다. 따라서 각 계정에 들어 있는 예정배부액에 비례하여 차이를 배분해야 해당 계정에 반영된 제조간접원가를 조정할 수 있다. 선지의 '실제배부액'은 '예정배부액'으로 고친다.

③ O: 실제배부율은 실제 제조간접원가를 실제 배부기준수량으로 나눈 값이므로 해당 기간의 실제 자료가 집계된 뒤 사후적으로 계산한다. 예정배부율은 예정 제조간접원가를 예정 배부기준수량으로 나누어 **기초에 미리 계산**한다. 이를 이용하면 실제 제조간접원가의 집계가 끝나기 전에도 기간 중 제품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

④ O: 과대배부는 제조간접원가를 실제발생액보다 많이 배부한 상태이다. 매출원가조정법은 배부차이 전액을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므로, 과대배부액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매출액 등 다른 조건이 같다면 조정 전보다 매출원가가 감소한 만큼 이익이 증가한다.

NoteBase

문 10. (주)한국의 다음 자료를 이용한 영업레버리지도는? (단, 기말재고와 기초재고는 없다)

◯ 매출액: ₩1,000,000
◯ 공헌이익률: 30%
◯ 고정원가: ₩180,000

① 0.4
② 0.6
③ 2.0
④ 2.5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영업레버리지도는 **공헌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공헌이익은 300,000원, 영업이익은 120,000원이므로 영업레버리지도는 2.5이다.

계산 과정

영업레버리지도는 현재 매출 수준에서 매출액 변화율에 대한 영업이익 변화율의 배수이다. 판매단가·단위당 변동원가·고정원가가 일정한 범위에서는 매출액과 공헌이익이 같은 비율로 변하고, **고정원가는 매출액이 변해도 일정**하므로 공헌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누어 구한다. 이 문항은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모두 없어 재고 변동에 따른 이익 조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공헌이익 계산: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뺀 금액으로, 고정원가를 충당하고 이익을 내는 데 기여한다. 공헌이익률이 30%이므로 공헌이익은 1,000,000원 × 30% = 300,000원이다.

영업이익 계산: 공헌이익에서 **고정원가를 차감**한다. 영업이익은 300,000원 − 180,000원 = 120,000원이다.

영업레버리지도 계산: 공헌이익 300,000원을 영업이익 120,000원으로 나누면 $\frac{300,000}{120,000} = 2.5$이다. 따라서 영업레버리지도는 2.5로, ④의 값과 일치한다. 이는 위 조건에서 매출액이 1%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2.5% 증가한다는 뜻이다.

NoteBase

문 11.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상증자로 자본금은 변동하지 않는다.

② 주식배당은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킨다.

③ 주식분할은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킨다.

④ 주식병합으로 자본금은 변동하지 않는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무상증자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므로 **자본금이 증가**한다. 외부에서 새로 납입받는 금액이 없어 자본총계가 그대로인 것과 자본금이 변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

선지별 해설

① X: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잉여금이 줄어드는 만큼 **자본금은 증가**하므로 '자본금은 변동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자본금은 증가한다'로 고쳐야 한다. 자본 내부의 항목만 바뀌므로 자본총계는 변하지 않는다.

② O: 주식배당은 현금 대신 새로 발행한 주식으로 이익을 배당하는 것이다. 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하므로 **발행주식수가 증가**한다. 이익잉여금의 일부가 자본금으로 전환되므로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자본총계는 변하지 않는다.

③ O: 주식분할은 기존 주식 한 주를 여러 주로 나누는 것이므로 발행주식수가 증가한다. 액면주식의 경우 **주식수가 늘어나는 비율만큼 1주당 액면금액이 낮아져** 자본금은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액면금액 1,000원인 주식 1주를 500원인 주식 2주로 나누어도 액면금액의 합계는 1,000원으로 같다.

④ O: 주식병합은 여러 주를 한 주로 합치는 것이므로 발행주식수가 감소한다. 감자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병합에서는 액면주식의 **주식수가 줄어드는 비율만큼 1주당 액면금액이 높아져** 자본금은 변하지 않는다. 이는 주식수를 줄이면서 자본금도 감소시키는 감자와 구별된다.

NoteBase

문 12. (주)한국은 20×1년 중에 (주)민국의 지분상품을 ₩80,000에 취득하고, 이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선택분류하였다. 이 지분상품의 20×1년 말, 20×2년 말 공정가치는 각각 ₩70,000, ₩110,000이다. (주)한국이 20×3년에 이 지분상품을 ₩90,000에 모두 처분하였을 경우 처분손익은? (단, 거래원가는 없다)

① ₩0

② 처분손실 ₩10,000

③ 처분이익 ₩10,000

④ 처분손실 ₩2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으로 선택분류한 지분상품은 처분하더라도 누적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처분손익은 0원이다.

공통 해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으로 선택분류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여 자본에 누적한다. 처분 시점까지의 공정가치 변동에도 같은 처리를 적용하며, 처분할 때 누적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누적액을 이익잉여금 등 자본 내 다른 항목으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이는 수익이나 비용을 인식하는 처리가 아니다.

이 문제에서 20×2년 말 공정가치 110,000원과 20×3년 처분가액 90,000원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또한 취득원가 80,000원과 처분가액의 차이로 남는 누적액도 처분이익으로 옮기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원가가 없는 이 지분상품의 처분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처분손익은 0원이다.

NoteBase

문 13. (주)한국의 다음 자료를 이용한 변동제조원가발생액은? (단, 기초제품 재고와 기초 및 기말 재공품재고는 없다)

◯ 당기 제품생산량: 50,000개
◯ 당기 제품판매량: 50,000개
◯ 변동매출원가: ₩900,000

① ₩600,000
② ₩700,000
③ ₩800,000
④ ₩90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재공품재고가 없고 당기에 생산한 제품을 모두 판매했으므로, 당기에 발생한 변동제조원가는 **전액 변동매출원가**가 된다. 따라서 변동제조원가발생액도 900,000원이다.

공통 해설

변동제조원가발생액은 당기 생산에 투입된 제조원가 중 조업도에 따라 총액이 변하는 부분이며, 변동매출원가는 판매된 제품에 포함된 변동제조원가이다. 두 금액은 원가가 재공품이나 제품재고에 남아 있거나 기초재고에서 넘어오는 경우에 달라질 수 있다.

이 문제에서는 기초 및 기말 재공품재고가 없으므로 당기에 발생한 변동제조원가가 모두 완성된 제품으로 옮겨간다. 또한 기초제품재고가 없고 당기 생산량과 판매량이 각각 50,000개로 같으므로, 당기에 생산한 제품은 모두 판매되어 기말제품재고도 없다. 따라서 **재고에 남거나 기초재고에서 넘어오는 원가가 없어** 변동제조원가발생액과 변동매출원가는 같으며, 요구하는 금액은 900,000원이다.

NoteBase

문 14. 지방자치단체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②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는데 필요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④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4번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자료와 증빙으로 회계처리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원칙이다. 지방회계법 제5조 제1호가 이를 회계처리 원칙으로 명시하므로 선지는 옳다.

지방회계법 제5조 제1호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②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로 처리하는 지방회계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제12조 제1항
지방회계법 제12조(지방회계기준)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NoteBase

③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성과를 쉽게 파악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해야 한다. 충분한 정보 제공은 재정활동과 성과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갖추게 하고, 간단·명료한 처리는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지방회계법 제5조 제2호는 이 두 요구를 함께 규정하므로 선지는 옳다.

지방회계법 제5조 제2호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 · 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④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선지는 첨부할 의견을 감사의견으로 잘못 제시하였다.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지방회계법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③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15.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한다.

② 국채는 국채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③ 일반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④ 국가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전환은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정답 4번

①

재정상태표의 자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를 기초로 계상**한다. 무주부동산 취득,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은 취득 당시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計上)한다. 다만,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국채는 발행가액에서 **발행수수료와 발행에 직접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국채 및 공채의 평가)
① 국채 및 공채(이하 "국채등"이라 한다)는 국채등 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4.7.31>

NoteBase

③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감가상각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 등을 적용**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일반유형자산의 평가)
① 일반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定額法)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④

국가회계실체 사이의 관리전환은 **무상거래이면 장부가액, 유상거래이면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선지는 두 평가기준을 서로 바꾸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2항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② 국가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전환은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15.12.31>

NoteBase

문 16.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6월 중 재고자산의 매입 및 매출과 관련된 자료이다.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을 적용한 매출원가는? (단, 재고수량 결정은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른다)

구분	수량	×	단가	=	금액
기초재고(6월 1일)	12		₩100		₩1,200
당기매입:					
6월 10일	20		₩110		₩2,200
6월 15일	20		₩130		₩2,600
6월 26일	8		₩150		₩1,200
판매가능액	60				₩7,200
당기매출:					
6월 12일	24				
6월 25일	20				
기말재고(6월 30일)	16				

① 선입선출법: ₩4,960, 가중평균법: ₩5,014

② 선입선출법: ₩4,960, 가중평균법: ₩5,280

③ 선입선출법: ₩5,560, 가중평균법: ₩5,014

④ 선입선출법: ₩5,560, 가중평균법: ₩5,28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에 **최근 매입단가**를 적용하므로 매출원가가 4,960원이다. 실지재고조사법의 가중평균법은 **월 전체의 평균단가 120원**을 판매수량 44에 적용하므로 매출원가가 5,28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수량과 원가 확인: 6월 판매가능수량은 12 + 20 + 20 + 8 = 60이고, 판매가능액은 1,200 + 2,200 + 2,600 + 1,200 = 7,200원이다. 판매수량은 24 + 20 = 44이며, 기말재고수량은 60 − 44 = 16으로 표와 일치한다. 매출원가는 판매가능액에서 기말재고액을 빼서 구한다.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재고부터 판매된 것으로 보므로, **기말에 남은 재고에는 최근 매입단가부터 적용**한다. 기말수량 16은 6월 26일 매입분 8과 6월 15일 매입분 중 8로 구성된다. 따라서 기말재고액은 8 × 150 + 8 × 130 = 2,240원이고, 매출원가는 7,200 − 2,240 = 4,960원이다.

가중평균법: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기초재고와 당월 전체 매입분을 합친 총평균단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6월 26일 매입분도 평균단가 계산에 포함한다. 단위당 평균원가는 $\frac{7,200}{60} = 120$원이다. 판매된 수량 44에도 이 단가를 적용하므로 매출원가는 44 × 120 = 5,280원이다.

선입선출법 4,960원, 가중평균법 5,280원의 조합은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7. (주)한국은 20×1년 6월 말 주거래 A 은행 측 당좌예금 잔액 ₩13,000이 당사의 당좌예금 장부 잔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과 같은 차이를 조정한 후 (주)한국과 A 은행의 당좌예금 잔액은 ₩12,000으로 일치하였다. (주)한국의 수정 전 당좌예금 잔액은?

○ A 은행이 (주)한국의 당좌예금에서 ₩3,000을 잘못 출금하였다.
○ A 은행이 (주)한국의 받을어음을 추심하고 ₩3,000을 당좌예금에 입금하였으나, (주)한국은 이를 모르고 있었다.
○ (주)한국이 기발행한 ₩4,000의 수표가 A 은행에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 (주)한국이 ₩3,000의 수표를 발행하면서 장부에는 ₩8,000으로 잘못 기장하였다.
○ (주)한국이 20×1년 6월 12일에 입금한 ₩1,000의 수표가 부도로 판명되었으나, (주)한국은 이를 모르고 있었다.

① ₩5,000
② ₩8,000
③ ₩9,000
④ ₩1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회사 장부의 조정액은 어음 추심액 가산, 수표 발행액의 과대 차감 수정, 부도수표 차감을 합한 **7,000원 증가**이다. 따라서 수정 전 잔액은 수정 후 12,000원에서 7,000원을 뺀 **5,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은행계정조정은 은행 측 잔액과 회사 장부 잔액의 차이 원인을 각각 반영하여 같은 잔액으로 맞추는 과정이다. 은행만 잘못 처리했거나 은행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거래는 은행 측에서, 회사가 누락하거나 잘못 기록한 거래는 회사 장부에서 조정한다. 이 문제의 수정 후 공통 잔액은 12,000원이다.

은행 측 조정: 은행이 잘못 출금한 3,000원은 은행 측 잔액에 더한다. 이미 발행했지만 은행에 제시되지 않은 수표 4,000원은 회사 장부에는 출금으로 반영되었으나 은행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은행 측 잔액에서 뺀다. 따라서 은행 측 수정 후 잔액은 13,000 + 3,000 - 4,000 = 12,000원이다. 이 두 항목은 **회사 장부의 조정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받을어음 추심: 은행이 추심하여 입금한 3,000원을 회사는 아직 기록하지 않았다. 회사 장부에 누락된 예금 증가이므로 장부 잔액에 3,000원을 더한다.

수표 발행액의 기장 오류: 실제 출금액은 3,000원인데 회사는 8,000원을 차감하였다. 예금을 8,000 - 3,000 = 5,000원만큼 과도하게 줄였으므로, 장부 잔액에 **차액 5,000원을 더하여** 바로잡는다.

부도수표: 회사가 입금한 수표 1,000원이 부도났으므로 예금으로 기록한 금액을 취소해야 한다. 회사는 이를 모르고 있었으므로 장부 잔액에서 1,000원을 뺀다.

수정 전 회사 잔액의 역산: 회사 장부의 순조정액은 3,000 + 5,000 - 1,000 = 7,000원 증가이다. 수정 전 잔액에 이 금액을 더하면 수정 후 잔액 12,000원이 되므로, 수정 전 잔액은 12,000 - 7,000 = 5,000원이다. 이는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8.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10,000이 더 클 때, 다음의 자료를 이용한 당기 생산량은?

구분	수량 / 금액
판매량	500개
고정판매관리비	₩15,000
고정제조간접원가(총액)	₩30,000
기초재고	없음

① 650개

② 700개

③ 750개

④ 800개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기초재고가 없으므로 두 방법의 이익 차이 10,000원은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이다. 판매된 500개에 배분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20,000원으로 단위당 40원이므로, 당기 생산량은 750개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이익 차이의 의미: 전부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품원가에 포함하여 제품이 판매될 때 비용으로 처리한다. 변동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 전액을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기초재고가 없으므로 전부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이 10,000원 더 크다는 것은 고정제조간접원가 중 10,000원이 **기말재고에 남아 당기 비용에서 제외**되었다는 뜻이다. 고정판매관리비 15,000원은 두 방법 모두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이익 차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총 고정제조간접원가 30,000원 중 기말재고에 포함된 10,000원을 제외하면, 판매된 제품에 배분되어 매출원가로 처리된 금액은 30,000 - 10,000 = 20,000원이다. 이 금액은 **판매량 500개에 대응**하므로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frac{20,000}{500} = 40$원/개이다.

3. 당기 생산량: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총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생산량으로 나눈 금액이다. 따라서 당기 생산량은 총액 30,000원을 단위당 금액 40원으로 나누어 구한다. 당기 생산량은 $\frac{30,000}{40} = 750$개이며, ③의 750개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9. 다음 수정분개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재무상태와 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 종업원급여 미지급액 ₩10,000
◯ 선급보험료(자산) 중 기간이 경과하여 실현된 금액 ₩10,000
◯ 외상매출금 중 현금으로 회수된 금액 ₩10,000
◯ 선수임대료(부채) 중 기간이 경과하여 실현된 금액 ₩10,000
◯ 차입금 이자 미지급액 ₩10,000

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000 과소 계상된다.
② 비용은 ₩30,000 과대 계상된다.
③ 부채는 ₩10,000 과소 계상된다.
④ 자산은 ₩30,000 과소 계상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종업원급여와 차입금 이자의 미지급액을 누락하면 부채가 합계 20,000원 적게 기록된다. 반면 이미 수익이 된 선수임대료를 줄이지 않으면 부채가 10,000원 많게 남으므로, 순효과는 **부채 10,000원 과소 계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과대·과소 계상은 필요한 분개를 모두 반영한 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한다.

① X: 종업원급여·보험료·이자 비용 합계 30,000원과 임대료수익 10,000원을 인식하지 못한다. 비용 누락은 이익을 30,000원 늘리고 수익 누락은 이익을 10,000원 줄이므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0,000 − 10,000 = 20,000원 **과대 계상**된다.

② X: 아직 지급하지 않은 종업원급여 10,000원과 차입금 이자 10,000원도 당기에 발생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선급보험료 중 기간이 경과한 10,000원 역시 자산에서 보험료비용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를 모두 누락하면 비용은 10,000 + 10,000 + 10,000 = 30,000원 **과소 계상**된다.

③ O: 미지급 종업원급여와 미지급 이자는 각각 비용과 부채를 10,000원씩 늘려야 하므로, 누락하면 부채가 합계 20,000원 과소 계상된다. 기간이 경과한 선수임대료 10,000원은 부채를 줄이고 임대료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누락하면 부채가 10,000원 과대 계상된다. 두 효과를 합하면 부채는 20,000 − 10,000 = 10,000원 **과소 계상**된다.

④ X: 기간이 경과한 선급보험료 10,000원은 자산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누락하면 자산이 10,000원 과대 계상된다. 외상매출금 회수는 현금을 10,000원 늘리고 외상매출금을 같은 금액 줄이는 거래이므로, 이를 누락해도 **자산총액에는 영향이 없다**. 나머지 항목도 자산을 변동시키지 않으므로 자산은 전체적으로 10,000원 과대 계상된다.

NoteBase

문 20.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사채(표시이자율 10%, 만기 3년, 액면금액 ₩100,000, 이자 후급)를 ₩95,200에 발행하였다. 20×1년 이자비용이 ₩11,400 발생하였을 경우, 20×1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은?

① ₩95,200

② ₩96,600

③ ₩98,600

④ ₩101,4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이자비용 11,400원과 현금 지급이자 10,000원의 차액인 1,400원은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으로, 사채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연말 장부금액은 발행금액 95,200원에 1,400원을 더한 96,600원이다.

계산 과정

기초 장부금액: 사채를 액면금액 100,000원보다 낮은 95,200원에 할인발행하였다. 발행 시 사채의 장부금액은 **실제 발행금액**인 95,200원이며, 20×1년 1월 1일 발행이므로 이 금액이 해당 연도의 기초 장부금액이다.

현금 지급이자: 표시이자는 **액면금액에 표시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년분 이자를 후급하므로 20×1년 말 지급이자는 100,000원 × 10% = 10,000원이다.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해당 연도에 인식한 이자비용은 11,400원이지만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는 10,000원이다. 차액 11,400원 − 10,000원 = 1,400원은 할인발행차금의 상각액이다. 이는 발행 시 액면금액에서 차감했던 할인발행차금을 줄이므로 **사채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킨다.

기말 장부금액: 기초 장부금액에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을 더하면 95,200원 + 1,400원 = 96,600원이다. 따라서 20×1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은 96,60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